

야, 이제 밥상머리에서 좀 그만들 떠들어! 공부방 애들이 짚끔하며 손가락을 다시 든다.
한 아이를 두고서 모든 아이들이 한통속이 되어 몰아붙이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못해서
한소리 질렀다. 초등학교 오프라 애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게임 이야기를 놓고
너댓 아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진짜 그렇게 포인트를 따봤냐는 등,
그 단계에서 뒤는 절대로 안나온다는 등, 뺨치지 말라는 등 난리가 아니다.
어눌하게 항변을 해보지만 물량공세에 묻혀버린다. 내가 이 나이 이 처지라면 벌써 울먹울먹하고 말았겠다.
한 명에게 집중된 겹겹의 공격성에 나또한 부아가 치미는 중에 다들 눈싸움하러 나간단다.
평소 같으면 누구보다 빨리 신발 신고 있을 그 아이는 고개 돌리고 앉아 만화책만 훑히 넘기고 있다.
같이 나가서 안 놀아? 싫어요, 애들이 저 싫다는데 제가 왜 나가요?
야, 애들이 오죽 못났으면 떼거리로 그러겠냐, 니가 이해해라. 됐어요.
나랑 놀까? 됐어요. 그 좋아하던 보드게임도 마다하고 아이는 단단히 맘 상해 있다.
조금 후에 애들이 돌아와 속없이 또 킁킁대며 놀기 시작하고 아이는 혼자 밖으로 나간다.
잠시 잊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왁 소란이 인다.
아이가 돌아와서 방에 벌레 한 마리를 던져넣은 모양이다.
소심한 복수를 했구나. 놀란 것도 잠깐 애들은 벌레를 둘러싸고 또 새로운 놀잇감을 찾았다는 식이다.
쫓쫓 저것봐, 차라리 눈이라도 한바가지 퍼가지고 와서 방에 확 끼얹고나가지...
얼마나 지났을까? 당황한 아이들이 외쳐댄다. 선생님, 저 신발이 없어졌어요! 제 것도요!
나가보니 한판이 그냥 깨끗하다. 애들 신발은 커녕 내 구두도 없다. 순간, 밀려오는 통쾌함이라니,
앗싸, 해냈구나! 우왕좌왕 애들 꼴이 그야말로 고소하다. 어쩔 이리도 치밀한 작전을 세웠을까.
벌레로 시선을 잡아놓고 신발 몽땅 보쌌해간 그 배포가 가슴을 뺨뚫리게 한다.
짜식, 내 구두는 좀 놔두고 가지, 흐흐흐...
올해, 요모양멋진 역전 한판승이 이동네 저동네 곳곳에서 좀 벌어지면 안될까나?

